통권 15호
OCTOBER 2026

1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106호 (선유도역 8번 출구)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1776라운지 개소 감사예배 및 찰리 커크 1주기 추모예배

지난 9월 11일,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찰리 커크 1주기 추모예배와 1776라운지 개소예배를 함께 드렸다. 약 30명의 참석자가 모여 식사와 교제를 나눈 후, 안석문 목사님(아침교회 담임)의 개회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이어 1776연구소 자문위원인 박명수 교수님께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1776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는 말씀을 전했다.

견미단 2·3기 출신 정이한 단원의 클라리넷 축주와 연구원들의 특송이 이어졌으며, 찰리 커크 추모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조평세 대표가 9·11 테러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1776연구소에서 제작한 찰리 커크 추모 엽서를 나누고, 벤 샤피로와 에리카 커크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며 쓴 글을 함께 나누며 그의 삶과 유산을 기렸다. 이를 통해 1776연구소가 추구하는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축복과 격려의 말을 나누고 떡을 함께 나누며 교제했다. 이번 예배는 새롭게 문을 연 1776라운지를 찬양과 말씀으로 채우며, 앞으로 이 공간이 감당할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1776연구소는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1776라운지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만나고 교류할 예정이다.










대표 인사말

마음의 평온을 위해 눈과 귀를 닫고 싶은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 뉴스가 괴로울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저항의 목소리를 어떻게라도 내어야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1년 동안 DMZ에 지뢰를 매설하는 중대한 군사 도발을 진행했는데, 정부는 이를 쉬쉬하다가 우리 장병이 발목을 절단 당하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그마저도 한참을 '지형 변화'라느니 '미상의 폭발'이니 '매설 의도가 불확실'하다느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며 북한정권을 싸고 돌았습니다. 세계 최대 화약고인 휴전선에 우리 보초들은 실탄도 없다지요? 나라가 아직 남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사건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는 진작에 한국에 보내주었는데 정부는 이를 숨겼고, 국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북 협상카드로라도 쓸 궁리였던 걸까요? 대뜸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며 발끈하더니, 급기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다고 하네요. 보란듯이 자유진영에 침을 뱉는 노골적인 친러친중 태세입니다.

안보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태아를 굶겨죽일 뿐 아니라 산모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는 낙태약을 상용화하기 시작했고, 많은 훌륭한 대안학교들은 폐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육영수 여사의 죽음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패륜영화는 200만을 넘겼다지요? 검찰도 이제 폐지되었고, 최근에는 교도소 과밀화를 핑계로 범죄자들을 대거 가석방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전과 4범 양아치를 대통령으로 뽑은 댓가입니다. 이제 겨우 15개월 지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는데, 더 많은 국민이 깨어나려면 아직 더 파고 들어갈 밑바닥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형편은 날로 어려워 더 바랄 것이 없어 오는 중에서 저 어두운 사람들은 어서 바삐 엎지르려고 백가지로 애쓰거늘, ... 어서 바삐 일들하여 전국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자 없도록 힘쓰고 나갑시다!"
(1904년 8월 이승만, '대한교우들이 힘쓸일', 신학월보)

조평세 올림

FILM & BOOK CURATION

이 달의 영화 | 《언플랜드》

Unplanned | 2020 | 드라마 | 미국 | 1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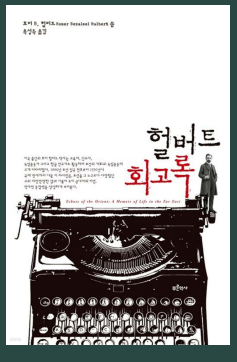
영화 《언플랜드》는 미국의 실제 낙태 시술 기관에서 근무했던 애비 존슨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낙태 시술 기관의 책임자로 일하며 낙태를 지지했던 주인공이 한 사건을 계기로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마주하고, 자신의 신념과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낙태를 둘러싼 갈등과 그 안에서 겪는 개인의 내적 변화를 통해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지난 9월 미국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이 주최한 기도 조찬에서 기독교 목회자 및 지도자들이 작성한 「생명을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Life)」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선언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 가운데 생명권을 모든 권리의 토대로 강조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교회와 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금지를 위한 의회의 입법을 요구하며 미국 내 생명권 논의의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의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토대」 기사 참고)

이러한 시대적 논의 속에서 《언플랜드》는 낙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란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로 추천한다. 본 영화는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 달의 도서 | 《헐버트 회고록》

호머 B. 헐버트 저 | 푸른역사 | 2026년 8월 30일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1776연구소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자리 잡기까지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 중심에는 한국을 깊이 사랑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던 호머 B. 헐버트(Homer B. Hulbert) 선교사가 있다. 《헐버트 회고록》은 한국에서 활동한 헐버트의 생애와 경험을 통해 구한말 한국의 역사와 당시 선교사들의 헌신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1886년 23세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육영공원과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는 교육자이자 선교사, 언론인, 언어학자로서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 최초의 근대적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저술하고, 『코리아 리뷰』와 『독립신문』 영문판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헐버트는 교육과 언론 활동을 넘어 한국의 독립과 국권 수호를 위해서도 헌신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한국인의 삶에 함께했던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한글날을 맞아 1776연구소는 한글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역사탐방을 진행하고 관련 워크북도 제작했다. 《헐버트 회고록》을 통해 한글의 대중화는 물론 한국 전반의 근대와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근대 민주정치를 만든 세 혁명과 세 권리 선언

글 / 찰스 R.캐슬러(Charles R. Kessler)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세 차례의 위대한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영국·미국·프랑스 혁명은 서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각각 정치적 변화를 정당화하고 설명하는 나름의 공개 선언을 남겼다. 미국인들이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지금, 다른 두 혁명의 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을 간략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다른 선언들과의 차이를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는 이긴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 2026년 유엔 총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설

"의장님,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에 아직 남아 있는 다른 도덕적 겁쟁이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0월 연구소 동정

한글날 역사탐방 및 워크북 《한글의 재창제와 K-문화의 시초》 발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은 물론 한글 대중화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쫓는 '한글날 역사탐방(광화문 세종이야기~양화진)'을 진행한다. 이에 맞춰 어린이 참여 활동이 수록된 워크북 《한글의 재창제와 K-문화의 시초》를 홈페이지(1776.or.kr)와 아래 큐알링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인스타그램에 워크북 활용 인증샷을 1776연구소 계정과 함께 태그해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워크북 다운

9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ㅇ은	김ㅇ은	남ㅇ정	박ㅇ주	신ㅇ식	이ㅇ빈	정ㅇ원	최ㅇ희
고ㅇ영	김ㅇ애	노ㅇ스더	박ㅇ기	신ㅇ진	이ㅇ운	정ㅇ슬	추ㅇ령
권ㅇ운	김ㅇ희	도ㅇ현	변ㅇ연	안ㅇ문	이ㅇ하	정ㅇ혜	한ㅇ다
권ㅇ현	김ㅇ은	만ㅇ학교	베드ㅇ센터	양ㅇ진	이ㅇ란	정ㅇ아	허ㅇ은
기ㅇ희	김ㅇ원	문ㅇ아	서ㅇ민	연ㅇ청	이ㅇ민	정ㅇ용	허ㅇ영
김ㅇ은	김ㅇ혜	민ㅇ환	서ㅇ현	원ㅇ슬	이ㅇ은	조ㅇ희	
김ㅇ연	김ㅇ	박ㅇ민	성ㅇ솔	유ㅇ민	이ㅇ창	조ㅇ자	
김ㅇ애	김ㅇ승	박ㅇ선	손ㅇ은	윤ㅇ옥	이ㅇ성	조ㅇ제	
김ㅇ종	김ㅇ준	박ㅇ린	손ㅇ광	이ㅇ은	장ㅇ	조ㅇ호	
김ㅇ희	나ㅇ원	박ㅇ서	신ㅇ환	이ㅇ운	정ㅇ교	차ㅇ욱	

후원 안내

정기후원자님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주세요.
일시후원도 가능해요!
우리 1005-004-781904 (1776연구소)
(후원 문의: 010-5949-1776)